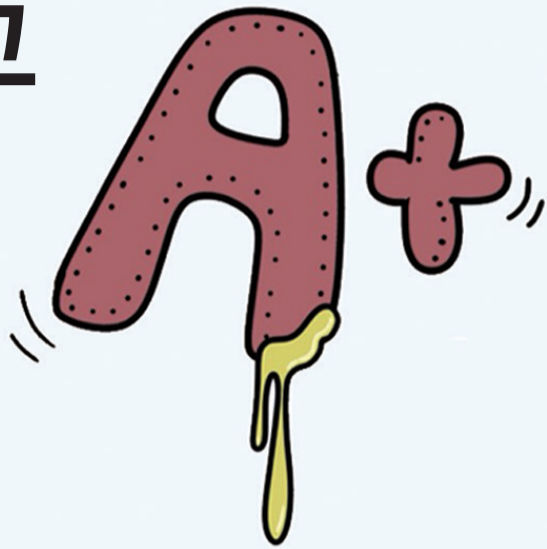


## 학점 완전 정복하고 A+ 받아보자



〈편집자주〉

‘대학에서 A+를 받는 사람은 학점 관리 어떻게 하지?’ 대학생들의 문턱을 막 넘은 새내기라면 누구나 한번쯤 떠올렸을 법한 궁금증이다. 좋은 학점을 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대학의 새로운 학업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테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성적 평가 방식과 성적 계산법, 그리고 효과적인 성적 관리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학점을 관리할 수 있다. 지금부터 새내기가 꼭 알아야 할 학점 관리 전략을 알아보자.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 학점 기준 한눈에 보기

9등급제로 성적을 계산하던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에서는 평점제를 활용해 성적을 평가한다. 성적은 평점제로 계산되며 학점 등급을 숫자로 환산해 평가하며, 학점 A+는 45점, A0는 40점, B+는 35점, B0는 30점, C+는 25점 등의 점수로 이어진다.

학점 등급과 평점을 부여받는 기준도 성적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본교의 성적 평가 방식은 크게 ▲상대평가 ▲절대평가 ▲P/N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과목이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대평가는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끼리 성적을 비교해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성적을 비교하기 위해 A+와 A0는 전체 성적 상위 30% 이내의 학생에게 주어지도록 제한된다. B+와 B0는 상위 70% 이내의 학생에게 부여되고 C+이하는 하위 약 30%의 비율로 평가된다.

절대평가는 같은 수업 내에서 학생 간 비교 없이 개인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석차를 기반으로 경쟁이 이뤄지는 상대평가와 달리 학생 간 경쟁을 줄이고 성적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절대평가에서 학점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교과목의 교수자가 설정한 점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중간·기말고사 성적 평균 85점 이상은 A+’라는 기준이 설정되면 해당 점수를 넘긴 모든 학생이 A+를 받을 수 있다. 절대평가는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이나 프로젝트 중심 과목, 현장실습 교과목 등에 주로 적용된다.

P/N(Pass/Non-Pass)은 과목 특성에 따라 일정 점수 및 출석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P), 기준 미달 시 불합격(N)으로 처리되는 성적 평가 방식이다. 불합격할 경우 F 등급으로 처리된다. 해당 평가 방식은 성적표에 학점으로 인정되지만, 한 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의 성적을 계산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대평가와 유사하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 실습 위주의 과목 등에 활용된다.

교과목별 성적 평가 방식은 수업 계획서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강의 수강 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 성적 계산법 A to Z

성적은 한 가지 항목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과목별 평가 방식이 달라도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돼 성적이 매겨진다. ▲출석 ▲중간·기말고사 ▲과제물 ▲발표 ▲태도 등의 항목이다. 각 항목의 세부적인 반영 비율은 과목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출석은 전체 성적의 10~20%를 차지한다. 중간·기말고사는 50~80%까지 반영될 수 있으며 과제물 및 발표, 태도 등은 나머지 0~40%를 구성한다. 성적 평가 요소 역시 수업계획서에 명시돼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대비해 보자.

그렇다면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나온 성적은 어떻게 계산될까? 학점은 각 과목의 이수 시간에 따라 부여되며 성적은 과목에서 받은 등급을 평점으로 환산해 산출된다. 한 학기의 성적은 각 과목의 평점에 학

점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하고, 총수강 학점 수로 나눠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 3학점 과목에서 A+, 2학점 과목에서 A0와 B0를 받았다 가정해 보자. 각 과목에서 점수는 A+(4.5점)×3학점=13.5점, A0(4.0점)×2학점=8.0점, B0(3.0점)×2학점=6.0점으로 계산된다. 이 세 과목을 모두 합치면 13.5점+8.0점+6.0점=27.5점이 되고, 총수강 학점 수인 7로 나누면 27.5/7=3.92로 성적이 계산된다. 만약 계산을 빠르고 간단하게 하고 싶다면,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의 학점 계산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본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점수를 환산하고 반올림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반면 일부 학점 계산기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 결과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성적을 직접 계산하며 자신의 학업 성과를 주도적으로 점검해 보기를 바란다.

## 다양한 수단으로 슬기롭게 해나가는 시험공부

대학에서 처음 시험을 치르는 새내기라도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먼저 과목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과목에 집중하자. 학점, 시험의 비중, 난이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학점이 높은 과목은 성적 산출에 미치는 비중이 커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전공과목은

전체 성적뿐 아니라 전공 평점에도 직결되므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절대평가나 P/N 방식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경우 상대평가 과목보다 경쟁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으니 교수자가 언급한 성적 평가 기준을 참고해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학습 계획을 세웠다면 본교의 수업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떤가. 본교는 일부 수업에서 ▲온

라인수업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등의 원격 수업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수업마다 녹화 강의를 활용하는 비율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녹화 강의를 활용해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웹엑스(Webex)를 활용한 실시간 수업의 녹화 강의는 교수자가 설정한 보관 기간까지 저장되며 강의를 수강한 학기가 종료될 때

까지 제공되기도 한다. 사전 녹화된 강의는 학기가 끝난 이후에도 반복 시청할 수 있지만 제작 후 3년이 지나면 수정 혹은 폐기될 수 있다. 대면 수업에서의 학습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 녹화 강의를 활용해보기를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을 활용해 시험에 대비해 보자. 교수자마다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오픈북, OX 등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 유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강의에 대한 필기자료, 과제물 등의 참고 자료를 PDF 파일이나 URL 링크 형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후 원하는 문제 유형을 요청하면 AI가 그에 맞는 문제를 출제한다. 문제의 답안을 작성해 이를 다시 AI에

제출하면 채점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해 학습 범위를 점차 확장한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AI에게 질문해 답변을 구할 수도 있다. 보다 양질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자. 암기한 내용을 문제 풀이에 적용하며 실전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해보는 건 어떤가.

# 조별 과제에 최적화된 명당을 ‘찜’해보자

본교에는 조별 과제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간들이 여럿 존재한다. 이 공간들은 모두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각 공간들이 가진 특성을 알아보고 상황과 목적에 맞게 조별 과제 공간을 이용해 보자.

##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상상베이스

본인이 수강하는 수업 중에서 조별 과제가 있는 수업이 많아 조마다 인원수가 다르다면, 상상관 지하 2층에 위치한 ‘상상베이스’로 가보자. 상상베이스는 ▲자유이용석 ▲세미나실 ▲그룹스터디룸 ▲프린트존 ▲휴게공간 등으로 나뉜다. 이중 조별 과제에 적합한 공간은 세미나실과 그룹스터디룸이다. 상상베이스 내 세미나실은 1곳, 그룹스터디룸은 총 8곳이 있다. 두 시설을 이용하려면 학생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전에 ‘공간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공간을 예약할 때는 전체 이용자의 성명과 학번을 입력해야 하므로 신청 전 팀원들의 학번을 알아놓아야 함을 유의하자. 세미나실은 대형 TV가 설치되어 노트북 화면 공유를 통해 조원 모두가 함께 화면을 보며 조별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최소 이용 인원은 6명 이상이며,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예약할 수 있다. 그룹스터디룸에는 각 방마다 화이트보드가 구비되어 메모하며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다. 최소 이용 인원은 3명 이상이며, 세미나실과 마찬가지로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예약 가능하다. 그룹스터디룸 중에서도 IB101과 IB102, IB103과 IB104는 접이식 가벽을 이동해 합실로 이용할 수 있다. 합실 이용 시에는 최소 5인에서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세미나실의 운영 시간은 학기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방학 중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다. 그룹스터디룸의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방학 중에는 세미나실과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된다.

## 쾌적한 환경에서, 산학협력 세미나실

화이트보드에 필기하며 아이디어 정리를 하는 동시에 대형 TV로 조원들이 함께 자료 공유를 하고 싶다면, 탐구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산학협력 세미나실’을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해당 장소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주 이용목적이지만, 본교 구성원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4월 개관해 가장 쾌적한 시설을 갖췄다고 봐도 무방하다. 산학협력 세미나실은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최대 12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상상베이스 그룹스터디룸과 마찬가지로 중앙에 이동식 벽이 설치되어 회의의 규모에 따라 공간을 넓혀 이용할 수 있다. ▲사고와 표현 ▲영어커뮤니케이션 독해·작문 ▲영어커뮤니케이션 청취·회화 등 새내기가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할 교양 필수 과목 수업의 대부분이 탐구관에서 이뤄진다. 교양필수 과목 수업이 끝난 후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조별 과제를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산학협력 세미나실의 학기 및 방학 중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 관련 서적을 바로바로, 그룹스터디실

학술정보관 내에서 자료 조사를 위한 도서를 구비한 채로 조별 과제를 진행하고 싶다면 학술정보관 3층부터 6층에 있는 ‘그룹스터디실’을 가보자. 그룹스터디실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 3층에는 2개의 그룹스터디실, 4층부터 6층에는 각각 1개의 그룹스터디실이 있다. 3층에



▲탐구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산학협력 세미나실 탐구관 B105호

▲상상관 지하 2층에 있는 상상베이스 세미나실 IB101

▲공학관 A동 지하 1층 상상파크 플러스의 Critical Thinking 소모임 공간



▲학술정보관 3층 그룹스터디실 내부의 책상과 의자, 서가의 책



※사진 제공 :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

있는 그룹스터디실 중 하나는 최소 3인에서 최대 7인까지, 4층 그룹스터디실은 최소 5인에서 최대 11인까지, 이외의 그룹스터디실은 최소 3인에서 최대 6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3층에 위치한 그룹스터디실 중 하나는 TV가 없으며, 4층 그룹스터디실은 전자칠판이 구비되어 있다. 모든 그룹스터디실은 1일 최대 3시간까지 예약 가능하다. 단, 30분 이상 지각 또는 입실하지 않을 경우 당일 이용이 제한되며, 해당 행동이 3회 이상일 경우 한 학기 이용이 제한된다. 그룹스터디실의 운영 시간은 학기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방학 중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 여러 기자재를 한 번에, 상상파크 플러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한다면 공학관 A동 지하 1층의 ‘상상파크 플러스’는 어떠한가. 상상파크 플러스는 ▲AI·빅데이터 실습실 ▲소모임 공간 ▲오픈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조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공간은 소모임 공간이다. 소모임 공간은 8인실로, 총 6개의 공간이 있다. 최소 이용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1일 최대 3시간까지 예약할 수 있다. 소모임 공간의 모든 벽면은 화이트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쪽 벽면은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빔프로젝터는 별도로 기자재 예약을 통해 대여 가능하다. 이동형 타

공판과 가위 등의 도구도 구비되어 있다. 모든 공간은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 상상파크 플러스의 운영 시간은 학기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방학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지금까지 언급한 공간들을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때 선택하는 시간은 사용 시작 시간이다. 1시간 단위로 신청시간 선택이 설정된 페이지에서 9시를 클릭하면 9시부터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사실을 유의해 공간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만약 공간을 예약하지 않은 채로 이용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학내 전자기기 200% 활용 가이드

‘학교에서 노트북 대여 가능한가요?’, ‘인쇄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수시로 올라오는 질문들이다. 본교는 재학생을 위해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지만,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학생은 드물다. 학내에서 어떤 전자기기가 구비되어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과제 제출, 자료 조사 등을 위해 인쇄가 가능한 곳이 있다. 바로 미래관 B106호와 탐구관 202호에 위치한 ‘컴퓨터 자유 실습실’이다. 시중의 인쇄기는 비용을 지불하고 인쇄를 해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정적으로 무료 인쇄가 가능하다. 재학생에게 인쇄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학기당 6,000원씩 지급되기 때문이다. 할당된 비용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추가로 충전할 수 있다. 학기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 방학에는 미래관 B106호만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된다.

교내에서 자유롭게 노트북을 사용하고 싶다면 상상관 3층 통합기자재실을 방문하면 된다. 학기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 방학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신분증 혹은 학생증을 지참해야 하며, 당일 반납해야 한다.

급하게 문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노트북이 없다면 대여해보는 것은 어떤가.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상상파크에서 대여할 수 있다. 단 상상파크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최대 1일 단위로 예상 사용시간을 입력해야 한다. 학기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방학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과목 수업 진행 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대여가 가능한 물품도 있다. 바로 카메라와 캠코더다.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상상파크 지하2층 VR·AR 멀티스튜디오에서 대여하면 된다. 당일 반납해야 하니 이용 전 참고하자.

3D프린터와 같은 고가의 기기도 이용할 수 있다. 5가지의 3D프린터가 구비되어 있으며,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상상파크 지하 1층에서 대여하면 된다. 다만, 3D프린터를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개인 필라멘트를 지참해야 출력이 가능하다.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제품의 표면을 다듬거나 도색하기 위한 장비인 스프레이 부스도 이용할 수 있다.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상상파크 지하 1층 핸드크래프트 룸에서 대여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상·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AR기도 구비되어 있다.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상상파크 지하 2층 VR·AR 멀티스튜디오에서 대여 가능하다. VR기기에 사용되는 스마트폰도 함께 대여할 수 있다. 상상파크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는 것을 유념하자.

이외에도 사물을 3차원 형태로 데이터화하는 3D스캐너, 다양한 소형 부품을 만들기 위한 레이저 커팅기 등도 구비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해 보자. 기자재별로 사용 가능 공간과 최대 예약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대여를 신청하자.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새내기의 첫걸음을 돕는 종합선물세트

## 학습역량지원, 새내기의 '길잡이'가 되다

설레는 대학교의 첫 수업. 새내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하지만 곧이어 등장하는 과제와 시험을 보고 새내기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이를 대비해 본교는 학교 생활에 익숙지 않은 새내기를 포함한 재학생을 위해 '학습역량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습역량지원 프로그램에는 ▲한성튜터링 ▲학과전공튜터링 ▲학습능력향상튜터링 ▲학습컨설팅 ▲학습법워크숍 등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모두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제부터 수업을 듣는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새내기를 위해 본교의 학습역량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자.

특정 과목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성튜터링'을 이용해 보자. 한성튜터링은 특정 과목에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학생(튜터) 1명과 해당 과목 학습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최대 5명의 학생(튜티)이 한 팀을 이룬다. 튜터와 튜티는 8주간 매주 1회 2시간 이상 만나며 학습한다. 한성튜터링 튜터로 참여 시 비교과 포인트 최대 30pt를 지급받는다. 1학기 한성튜터링은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사이, 2학기 한성튜터링은 9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신청 가능하다.

전공 과목 중 실습 수업이 많다면 '학과전공튜터링'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학과전공튜터링은 1명의 우수학생(튜터)과 최대 5명의 학생(튜티)이 한 팀을 이뤄 담당 교수와 함께 수업 혹은 실습시간에 전공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실습 수업이 포함된 컴퓨터공학부 전공기초 과목인 '웹프로그래밍 기초'를 수강하는 새내기는 튜터와 담당 교수

의 도움을 받아 학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각 교과목 분반별 학생이 신청하면 이중 교수가 튜터링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을 튜티로 배정한다. 1주당 4시간씩, 최대 10주 동안 진행된다. 튜티는 자신의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튜티를 지도하고, 담당 교수는 튜터가 가르친 내용을 보완해 전공 과목의 학습 방향을 제시한다. 학과전공튜터링 튜티로 참여하면 최대 50pt의 비교과 포인트가 지급된다. 학과전공튜터링은 학과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자.

특정 과목 학습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 학습활동 전반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학습능력향상튜터링'에 신청해 보자. 해당 튜터링은 지도교수가 추천서를 통해 추천한 학생(튜터) 1명과 학습활동 및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튜티) 1명, 총 2명이 한 팀이 돼 튜티의 학습촉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4시간씩, 총 9주 동안 활동한다. 튜티는 튜티에게 학교생활 안내, 학습방법 개선 등에 대해 1:1로 지도한다. 학습능력향상튜터링에 참여하는 튜티는 튜터가 진행하는 튜티 평가를 통해 10~30pt까지 비교과 포인트를 차등 지급받는다. 학습능력향상튜터링은 한성튜터링과 유사한 시기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3가지 튜터링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선배와 함께 진행하는 튜터링 이외에도 자신의 학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학습컨설팅'이다. 학습컨설팅은 학



▲튜터 경험자가 기자들에게 튜터링을 진행한다.

습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1 컨설팅을 통해 학생의 현재 학습활동을 파악하고 더 나은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회 50분간 대면으로 진행되는 컨설팅을 6회에 걸쳐 이수하며, 5회 이상 참여해야 이수 처리된다. 학습컨설팅은 먼저 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학습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상태를 진단하고, 전문 학습상담사와 함께 검사 결과를 상담받으며 심층 인터뷰가 진행된다. 이후 개인별로 맞춤 전략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작성해 학습코칭을 받는다. 학습컨설팅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컨설팅 전후의 역량 향상 정도를 파악한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생활상담센터로 연계해 심리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단, 무단

결석 2회 시 중도 탈락된다. 학습컨설팅은 회차당 5pt의 비교과 포인트가 지급되며, 6회를 전부 이수하면 40pt를 받는다. 학습컨설팅 모집은 1학기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2학기는 10월 초부터 말까지 이뤄진다. 앞서 언급된 튜터링과 학습컨설팅은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법 워크숍'도 있다. 매 학기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습법워크숍은 ▲시간관리법 ▲보고서 작성법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매 학기 4개의 특강이 열린다. 학습법워크숍 접수는 1학기 3월 중순부터 말까지, 2학기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가능하다. 워크숍 역시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책으로 이뤄내는 소통과 성장

본교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독서하고 책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까지 진행해 사고의 범위도 확장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학술정보관에서 진행되는 '독서클럽'이다. 학우들과 함께 독서의 세계로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독서클럽은 3~5명의 학생과 멘토교수 1명으로 구성된 독서활동을 위한 모임이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책을 매개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휴학생을 제외한 본교 재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팀원을 미리 정해 참여할 수 있고, 팀원을 찾지 못했다면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팀을 개설하거나 개설된 팀에 팀원으로 참여해도 무방하다. 참여 혜택으로는 1인당 2만 원의 활동 장학금과 20M의 상상독서 마일리지 지급되고, 멘토교수 및 사서 평가를 통해 최대 60pt의 비교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독서클럽의 유형은 ▲자유테마 클럽 ▲멘토지정테마 클럽 ▲한 책 클럽으로 구성돼 있다. 세 유형 모두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기간은 개강 후 약 2주가량이다. 이후 약 3개월 동안 활동하며 주 1회, 총 4회 모임을 진행한다. 4회 중 최소 2회는 멘토교수의 참석이 요구된다. 모임의 형태는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의 경우 학술정보관 메타버스 한성 북니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회차별로 보고서 작성해 활동 종료 후 제출해야 한다.

자유테마 클럽은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형태다. 팀 구성이 완료되면 참

여자가 멘토교수도 직접 섭외해야 한다. 테마 도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테마도서 선정이 어렵다면 학술정보관에서 선정한 '한성권장도서 200선' 혹은 '교수님이 추천하는 전공교양도서를 참고해 보자.

멘토지정테마 클럽은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학술정보관에서 팀원을 매칭해 클럽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멘토교수도 학술정보관 측에서 지정해주며, 테마 도서는 멘토교수가 지정한 도서로 진행된다. 한 책 클럽은 본교 구성원의 투표로 선정된 '한 책'을 테마도서로 지정해 활동하는 클럽이다. 팀원 구성방법은 멘토지정테마 클럽과 동일하지만, 멘토교수는 참여자가 직접 섭외해야 한다. 2024학년도 2학기에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한 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독서클럽 활동 종료 후에는 독서클럽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클럽 발표대회(이하 대회)가 진행된다. 희망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클럽별로 테마도서를 소개하고 종합 감상 및 후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대회는 학술정보관 메타버스 한성 북니버스 ver.2(게더타운) 플랫폼 내 발표대회장에서 진행된다. 수상 시 상장과 함께 최대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2023학년도 2학기 독서클럽에 참여한 채혜정(인문 2) 학생은 "독서클럽이 타인의 의견을 경청·이해하고 견해 차이를 조율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공동 주제를 갖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교육장학금으로 그리는 진로의 청사진

'원하는 자격증 뭐부터 따지?' 새내기라면 누구나 상상하는 일한 대학 생활.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자격증 공부에 필요한 강의나 시험 응시료가 예상보다 비싸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바로 본교에서 지원하는 '교육장학금'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장학금은 재학생의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제공된다. 전공 분야, 전공 외 분야, 어학 공부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1학년부터 4학년, 그리고 초과학기까지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1학년은 1학기 동안 교내 프로그램만을 활용할 수 있으며, 2학기에는 교외 프로그램 및 응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누적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2학년은 누적 50만 원, 3·4학년은 누적 100만 원까지 교육장학금을 이용할 수 있다.

본교가 주최하는 교내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증 시험 응시료, 대회 참가비 등의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현재 진행 중인 교내 교육 프로그램은 ▲365캠퍼스 ▲공자학당 ▲D-School 등이 있다. 시험 응시료는 수험번호가 기재된 수험표나 응시확인서가 있다면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이 이뤄진다.

교외에서 진행되는 교육 관련 항목은 30%가 지원된다. 쉐라리스트 기사 자격증 학원과 같은 전공 관련 교육 훈련이나 TOEIC 인터넷 강의와 같은 고시, 어학, 전산 관련 교육 등의 외부 교육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한다. 지도교수가 승인한 전공 관련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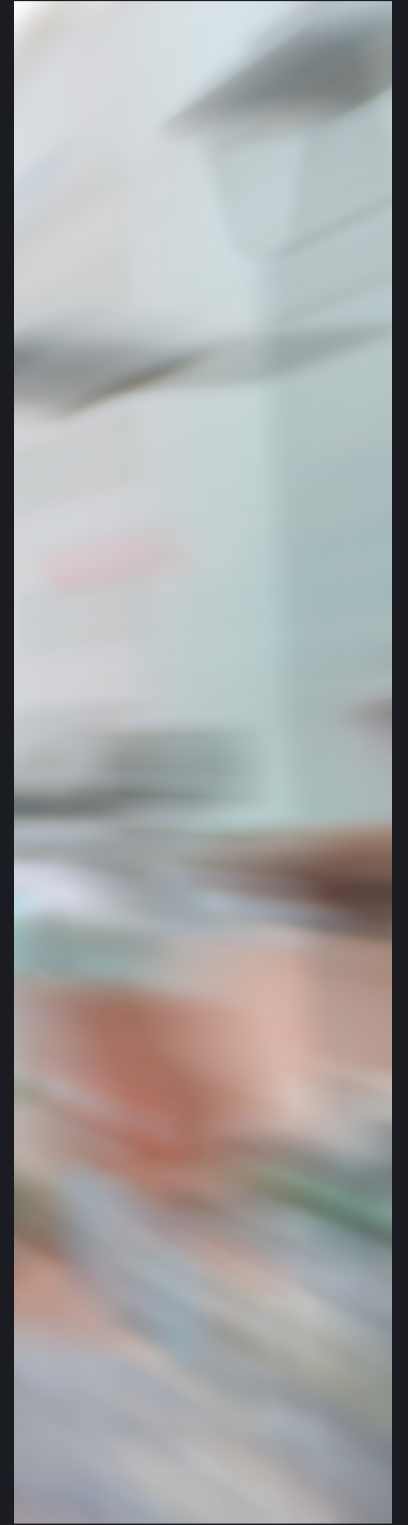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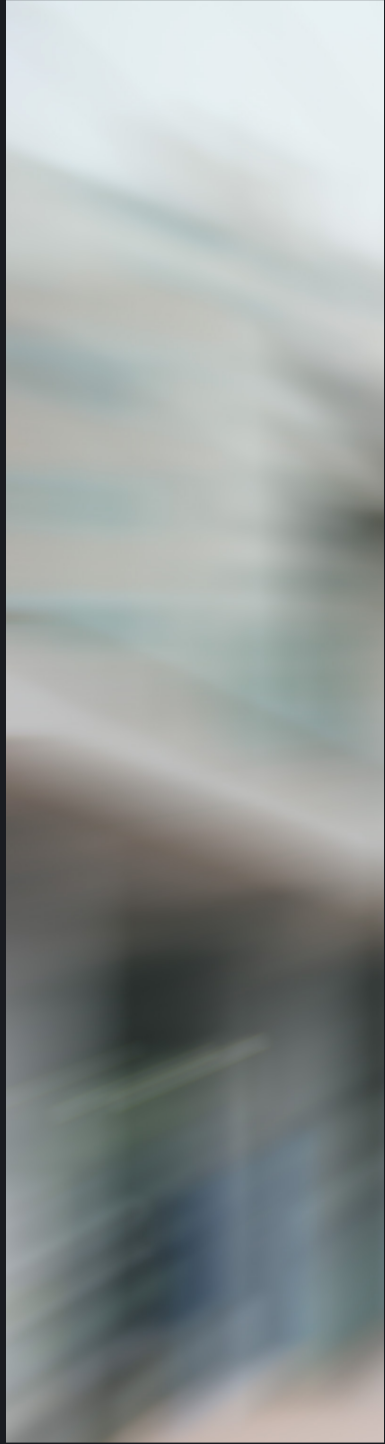
시·공연 관람비도 동일한 비율로 지원된다.

교육장학금 신청은 학기별로 운영된다. 1학기의 신청 기간은 3월부터 8월 말일까지, 2학기의 신청 기간은 9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다. 강의를 수강하거나 각종 시험을 응시한 해당 학기 내에 신청해야 하며, 연체된 신청은 처리되지 않는다. 다만 교육장학금 신청 시 교육 종료일이 마감일에 포함될 경우, 교육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 이후 시험 응시 결과가 발표될 때는 결과 발표 후 3일 이내에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장학금을 최초로 신청할 경우 본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소속 컨설턴트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한다. 컨설턴트와 상담 시 고용 24가 제공하는 직업 설계서를 통해 진로 탐색 및 경력개발에 대한 진단 결과를 안내받는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 내용과 함께 교육 장학금 활용 방안을 작성해 고용24가 운영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면 교육장학금 비용 지원은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서비스'의 '교육장학금 신청'을 누르면 신청 정보 입력란이 뜬다. 해당 입력란에 결제 내역과 수강증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한성의 미래를 그릴 첫 문장,  
도전과 열정으로 채워나가라



**한성대신문사**  
**제58기**  
**수습기자**  
**모집**

한성대신문